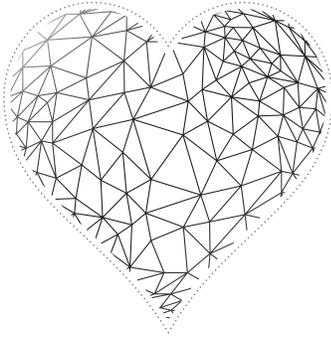


2026년 기도와 절제의 날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바로 지금 후원하세요

캐롤 버넷

소개

2026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기도와 절제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주제,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바로 지금 후원하세요”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집에서, 교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되며, 그 경험에 의해 아이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든 아니든, 우리는 아이들의 보호자이고 그들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 놀라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우리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줄 수 없는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배고픔을 겪고 있으며, 안전하지 않은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의료적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필수 아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할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종종 아이들의 부모를 돕는 것을 뜻하며, 국가 정책과 예산 책정에 있어서 아이들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의 기도와 절제의 날(A Call to Prayer and Self-Denial) 예배에서 드러진 헌금은 전국 선교 기관들(National Mission Institutions)의 사역을 통하여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따뜻한 식사와 돌봄 멘토가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정신 건강 상담과 사회적-정서적 지원, 인턴과 직업 체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을 위한 생명 집중 치료, 성인으로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도 그리고 가족들의 재결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던 아동 프로그램들이 축소와 폐지의 위험에 처해 있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선교 기관들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역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들의 사역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 응답하여 모든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봅시다.

예배 전 준비 사항

- 예배를 함께 인도할 낭독자 세 명을 미리 정하세요.
- 리스판스(response) 잡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선교 기관이 하고 있는 중요한 기사와 사진들을 찾아 보세요.
- 제단에 올려 놓을 전국 선교 기관의 사진들을 이 예배문 마지막에서 찾아 준비하세요.
- 활동과 제단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준비하세요. (아래의 준비물을 참고하세요).

준비물

활동을 위한 준비물

-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전국 선교 기관 목록 출력
- 우편 엽서, 안부 카드, 또는 빈 종이와 봉투
- 우표
- 펜과 연필

제단을 위한 준비물

- 천 또는 테이블 덮개
- 전국 선교 기관의 사진이나 물품, 전국 선교 기관 기사가 실린 리스판스 잡지 사진 자료
- 헌금 바구니
- 화분, 초, 그 외에 제단 장식 물품들

축하 예배: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바로 지금 후원하세요

인도자: 이 거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이들을 돌볼 공동의 책임을 묵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선배 여성들은 지역 공동체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어린이 돌봄 시설, 고아원, 학교, 급식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전국 선교 기관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기도와 절제 예배의 헌금은 전국 선교 기관들의 프로그램과 전국적 옹호 활동을 후원하게 됩니다. 이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 예방과 아동 보호

프로그램; 보육, 방과 후 프로그램, 그리고 통합 돌봄 프로그램; 난민과 취약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삶의 기회 제공; 학교-감옥-직행선 멈추기를 위한 옹호 활동.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는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기쁨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묵상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창조하신 대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을 옹호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안녕을 위한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깊은 연민과 행동의 긴박함을 일으켜 주셔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선교를 강하게 지지하게 하소서. 모든 어린이들, 특히 소외된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아멘.

낭독자: 우리에게 아이들의 소중한 가치와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성경 봉독

마가복음 9:36-37 (새번역)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3-5 (새번역)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찬송

이 작은 나의 빛”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찬송과 예배 337장)

말씀: 아이들을 후원하라는 명령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돌볼 때, 우리는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단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의 타고난 존엄과 가치,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부모나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매일 교감을 하든, 드물게 마주치든, 우리에게 아이들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로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은 격려와 성실한 조언, 그리고 조건 없는 애정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은 아이들이 취약할 때 그들을 대신하여 정의를 옹호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섬기는 전국 선교 기관들을 후원함으로써 그 빈틈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 음식, 안전, 의료 서비스, 그리고 빛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전국 선교 기관의 프로그램이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맥도넬 연합감리교회의 어린이 복지 프로그램 (MacDonell United Methodist Children's Services)은 아이들이 안정감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집을 찾습니다. 조지아주의 뉴베들레헴 지역 센터(New Bethlehem Community Center)는 K-12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힘을 실어 주고 임신한 십대들을 지원합니다. 애리조나주의 웨슬리 지역센터(the Wesley Community Center)는 의료 서비스, 방과 후 프로그램, ESL수업을 제공합니다. 유타 주의 크로스로드 어반 센터(Crossroads Urban Center)는 위기에 처한 가족들에게 긴급 식량, 의류, 그리고 생필품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절제 예배의 헌금을 통하여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라는 부르심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기부하고, 기도하고, 옹호함으로써, 우리는 아이 하나를 환영하고 섬기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매일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변화시키는 사랑과 흔들림 없는 정의의 그릇이 됩시다.

기도: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새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가사: 클라라 스캇, 1895
퍼블릭 도메인

낭독 1: 아이들은 살아가는 대로 배웁니다

아이들이 비판 속에 살면, 비난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적개심 속에서 살면,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비웃음을 받고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수치심을 가지고 자라면, 죄책감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격려를 받고 자라면, 자신감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칭찬을 받고 자라면, 고마움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공평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면, 믿음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인정받고 자라면,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수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에서 자라면, 번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법 집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라면, 소망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지지받는 공동체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영양 공급을 받고 자라면,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레이첼 해리스의 「아이들은 살아가는 대로 배웁니다」, 저작권 © 1998.(Hachette Book Group, Inc. 산하) Workman Publishing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인쇄함.
이태리체로 된 마지막 네 줄은 이 예배를 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찬양

“주님 요구하시는 것(What Does the Lord Require)”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41장)

주고받는 이야기(responsive reading)

다같이: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계속 증가해 왔고, 많은 아이들은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격차가 인종, 지리적 위치, 그리고 가족의 구조와 같은 원인들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낭독자 1: 베들레헴 센터는 몇 달 동안 대기자 명단에 있던 한 가족에게 옷과 음식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두 자녀를 둔 젊은 부부인데, 옷과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임신한 엄마와 네 가족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 필요한 물품과 살 곳을 찾으려 다섯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저기와 물 티슈와 분유를 구입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후, 이 가족은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은 등록비를 내지 않고 무료 유아 프로그램인 Early Head Start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같이: 연방 정부의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한 가계 부양의 보조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을 도와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윈스턴-세일럼의 베들레헴 센터(Bethlehem Center in Winston-Salem)에 감사를 전합니다.

다같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건강 악화, 양질의 교육 접근 제한, 식량 불안정의 위험의 증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낭독자 2: 우리는 테네시 주의 채터누가(Chattanooga)에 있는 베들레헴 센터의 전인적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영혼,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연결까지 총체적으로 양육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2024년, 베들레헴 농장 프로그램에 (Read to Lead Academy)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농업, 문해력, 수리력, 건강한 삶을 결합한 독특한 학습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읽기에서 인도하기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농장과 원예 클럽에 참여하여, 성장, 책임감, 그리고 무언가 땅에서 자라서 것을 보는 기쁨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에 따른 실제적인 기술과 결합된 학습 경험을 심화하여 연결시킨 것입니다. 학생들은 식물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읽고 건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문해력을 활용하였습니다. 식물 간격을 재고, 성장 과정을 추적하고, 수확량을 계산하면서 수리력도 향상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손으로 기른 열매를 수확하여, 그 재료들을 가지고 신선한 살사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일과 학업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면서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더 깊은 연결성을 가지면서, 학생들은 청지기 정신과 자연의 순환, 환경 보호의 영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가게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여하고 돌볼 수 있는 더 큰 생태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베들레헴 센터가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기술뿐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그들에게 영양분이 될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전인격적인 교육에 헌신한 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입니다.

다같이: 아이들에게 식량을 재배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중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환경을 돌보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채터누가의 베들레헴 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같이: 교육 성과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특히 백인 아동과 소수 인종 아동, 부유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사이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런 성과의 격차는 재정이 부족한 학교, 학생 수가 너무 많은 학급,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서 상위 과정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더욱 심화됩니다.

낭독자 3: 최근에 한 어머니는 베들레헴 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아들 벤을 등록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벤은 매우 활발한 일곱 살 아이로, 학교와 집에서 공부에 집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머니는 이 문제를 힘겨워했습니다. 그는 삼 형제 중 가운데 아이입니다. 세 자녀를 둔 엄마에게 있어서 집에서 숙제를 돌보는 일은 모두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이 가족, 특히 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그룹활동에 참여하거나 숙제에 필요한 도움받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평균 60-70점의 숙제 성적표를 보여 주었고, 학교 시험 성적은 심지어 더 낮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상담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일대일로 함께하며 자신감을 세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벤은 몇 주 동안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경건회와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담자가 묻기 전에 스스로 숙제를 꺼내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스템(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융합교육) 활동이나 야외 놀이를 즐겨 참여합니다. 벤은 자기 숙제 성적이 평균 80-90점을 받았다고 신이 나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학교 시험 성적도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벤이 학업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두려워 보이는 것 같은 새로운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사회의 아동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역사회의 청소년들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방과후 프로그램과 여름 학습 프로그램의 재정 확보는 아동들의 학급 손실을 완화하고, 방과 후에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며, 일하는 부모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켄터키 주, 프레이크스의 헨더슨 정착촌 사역(Henderson Settlement)에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보육 비용은 많은 가정,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은 큰 부담입니다. 많은 부모들, 특히 한부모 가정은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양육 환경의 부재는 아동들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낭독자 4: 칼리스터(Calister)는 세 명의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육아 돌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손주들을 무어 커뮤니티 하우스의 유아 교육 프로그램(Moore Community House Early Head Start)에 등록시킨 후에 더 이상 비싼 보육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녀가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주자,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CAN: Certified Nurse's Aide)을 갱신하려고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무어 커뮤니티 하우스는 또한 공과금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려고 지역 사회 자원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무어 커뮤니티 하우스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같이: 보육 보조금의 확대와 자금 증액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들이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는 미시시피 주 빌럭시(Biloxi)의 무어 커뮤니티 하우스가 여성과 그녀의 손주들에게 안정과 성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참회의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필요, 특히 빈곤한 가족들의 결핍에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느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에 늦장을 부리는 동안에도 전국 선교 기관들의 한결같은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모든 아이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게 하시어 연민과 긴급함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활동: 감사의 말씀

각 참가자에게 전국 선교 기관(National Mission Institution)을 하나씩 지정하거나, 온라인에서 선별한 기관 이름들을 인쇄하여 선교 기관 이름을 하나씩 뽑게 합니다.

선택한 선교 기관에게 감사 카드나 편지지에 감사의 메시지를 적도록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관의 사역에 감사하고,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그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고, 현재 가장 시급한 필요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해당 선교 기관이 지지하고 있는 특정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게 자신의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선교 기관의 이름]의 자매들에게,

저는 [자신의 여성교회 이름]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회원입니다. 우리는 귀 기관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필요를 돌보는 사역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저에게 편지를 보내실 집 주소와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이메일 주소]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름]

참가자들이 편지 쓰기를 마치면, 주소가 적힌 카드나 편지 봉투를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프로그램 인도자는 이 예배를 마치고 카드나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선택 사항: 온라인 선교 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알아본 다음, 정보 자료에 있는 선출직 담당자들에 대하여 읽고,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과 연락 정보를 확인합니다.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옹호하는 편지나 엽서를 국회의원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전국 선교 기관 자료
bit.ly/CTP-2026-toolkit

낭독 2: “아이들에 관하여”

그대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삶을 갈망하는 딸이며 아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 왔을 뿐 그대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이들이 지금 그대 곁에 있다고 해도 아이들은 그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체라는 집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으니, 꿈속에서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칼릴 지브란의 시, “아이들에 대하여”에서 따옴. 저작권 상관없이 공유 가능.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A Call to Prayer & Self-Denial Offering)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모든 아동들과 가정을 위하여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역을 하는 전국 선교 기관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마음과 손도 함께 드립니다. 너그럽게 헌금합니다. 재정적 자원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목소리를 아낌없이 나누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빈곤을 종식시키고,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도록 돕는 정책을 옹호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게 주는 권면

다같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청지기로서 행동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역 사회의 활동들(local initiatives)을 지원하든, 입법자들과 소통하든, 불의를 겪는 사람들과 연대하든, 가정의 필요를 채우든,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 몸 된 지체로서, 우리가 모든 아동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기 위하여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모든 방법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아동을 위한 옹호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아이들을 위한 챔피언이 됩시다.

축도

인도자: 오늘 세상의 아이들을 섬길 준비가 된 충만한 사랑과 두 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짐을 기억하며, 평안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모든 아이가 음식, 주거, 교육, 의료적 돌봄, 그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힘 그리고 용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의 도구가 되어,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는 세상을 위해 옹호하는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폐회 찬송

“나 여기 있나이다(Here I Am, Lord)”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찬송과 예배」 263장)

캐롤 버넷(Carol Burnett)은 미시시피 주의 저소득층 아동 보호 이니셔티브의 창립자이자 전무 이사입니다. 또한 그녀는 빌럭시(Biloxi)에 위치한 전국 선교 기관인 무어 커뮤니티 하우스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 기관은 저소득층 한부모 여성을 위해 저렴한 보호 서비스와 비전통적 직업에 대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Welcome to the 2026 Daily Prayer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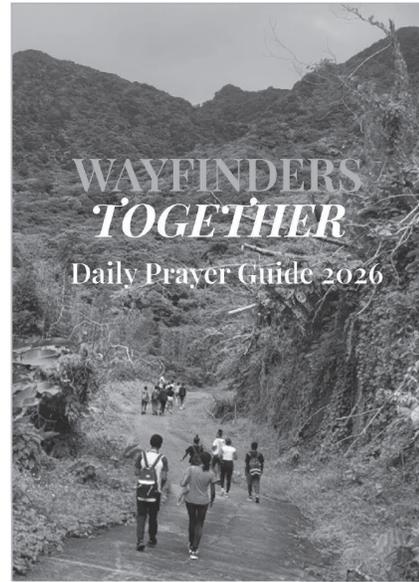
This year's Daily Prayer Guide focuses on how we, as God's people, are forging a new path as wayfinders in these "unprecedented times." The 2026 Daily Prayer Guide features accounts and graphics that illustrate spiritual and social wayfinding in such a time as this.

The Daily Prayer Guide includes many features to lead you through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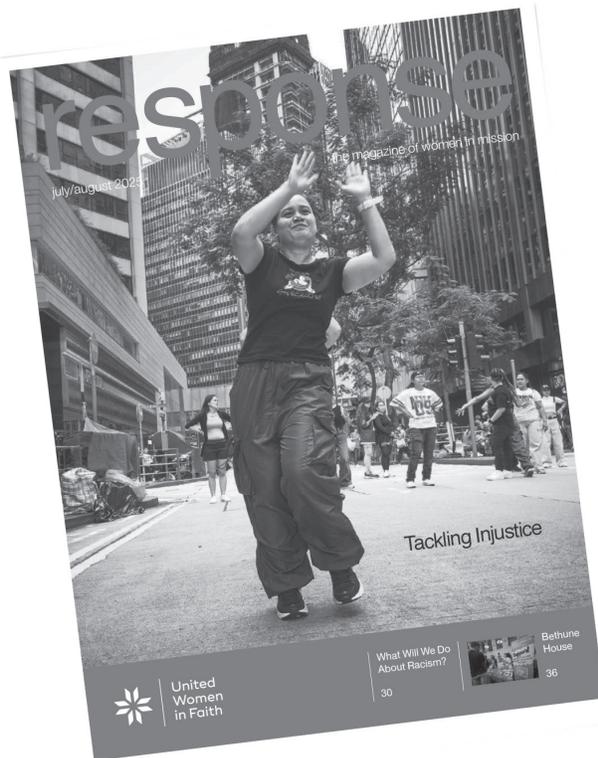
Weekly pages with photos, inspiring reflections, prayers, holidays, advocacy days, and lectionary readings.

A directory of mission personnel affiliated with United Women in Faith and Global Ministries. And more.

Use the QR code to order your Daily Prayer Guide today!



United Women in Faith



Want to embark on a courageous journey of faith and action?

response highlights the many ways United Women in Faith members are boldly tackling injustice and transforming the world.

Subscribe to **response** magazine:
uwfaith.org/response

faith

action

sisterhood



United Women in Faith